

여수시·지구촌사랑나눔회, 필리핀 봉사 ‘국제나눔’ 실천

의료봉사·구호물품 지원·앰블런스 기증… 산페드로시와 협력
“의료·봉사자 감사…국제 우호협력 굳건히 하는 소중한 밑거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사) 여수지구촌 사랑나눔회와 함께한 필리핀 의료봉사단이 최근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의료·구호물품을 지원하며 국제 나눔을 실천하고 우호협력력을 다졌다고 3일 밝혔다.

봉사단은 여수세일병원 강병석 원장을 비롯해 여수모아치과병원 (원장 오민제), 심병수신경외과 (원장 심병수), 조은이비인후과 (원장 이원석) 등 의사 11명과 간호사 3명, 자원봉사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안토니오·라구엘타·파시타 등 필리핀 3개 마을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여수시 보조금 5000만 원과 자부담 3720만 원으로 추진됐다. 의료봉사단은 치료 진료 장비 등 90여 종의 의료기기와 185종의 의약품, 처방·처방 400세트, 영양제 10만

정, 구충제 2만5000정 등 의료·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또 여수백병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앰블런스 1대를 산페드로시에 전달해 현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는 2007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치며 국제 인도주의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의료봉사가 여수시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에 전하고 국제 우호협력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사)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와 함께한 필리핀 의료봉사단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주)순수해작, 장흥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 쾌척 누적 3000만원…지역사회와 상생 실천·사회적 책임 실천

어업회사법인 (주)순수해작이 최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주)순수해작은 이번 기부로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하게 됐다.

지난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1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19년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준공된 (주)순수해작은 조미김을 전문으로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228억원, 수출액은 207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민경호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순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주)순수해작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학생예술동아리 ‘락(樂)뮤(Musical)’ 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 여름방학 집중연습 캠프’ 모습.

영광 학생뮤지컬 ‘락뮤’ 여름캠프 성료

11월 정기공연 준비…테라리움 만들기 체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은 영광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예술동아리 ‘락(樂)뮤(Musical)’ 단원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집중연습 캠프’를 운영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캠프는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 뮤지컬 공연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연출·안무, 보컬, 밴드 분야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대본 리딩과 발성 훈련, 장면별 동선 연습, 밴드와 뮤지컬부의 합동리허설 등을 진행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들이 11월 무대에 올릴 정기공연 ‘그날의 목소리’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을 관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학생들의 시선으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이다.

캠프 기간 조일영 영광군의회의 의장과 박원종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이 현장 방문, 학생들의 연습을 참관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프 기간에는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영됐다. 학생들은 자연을 가까이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보내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향상은 물론 지역과 교육공동체를 잇는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국 교육장은 “이번 집중연습 캠프가 학생들에게 예술적 성장뿐 아니라 협력과 소통,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11월 정기공연 ‘그날의 목소리’가 영광을 넘어 더 넓은 교육공동체에 감동과 울림을 전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13만평 흥련 편하게 즐기세요”…우습제 ‘벤치 기탁’

임기진 목사골 로타리클럽회장
정종안 영산강농장 대표 기부

나주 우습제 흥련 축제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13만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흥련 자생지인 우습제에는 지난달 축제 개막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주, 목포 등에서 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공산면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 등 축제 관계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해 양산 무상 대여와 부채 지급 등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정성과 열정에 지역사회도 따뜻한 릴레이 기부로 화답했다.

임기진 목사골 로타리클럽 회장이 100만원 상당의 방문객용 의자 10개를 기탁한 데 이어, 정종안 영산강농장 대표가 50만원 상당의 야외 벤치 5개를 기부하며 우습제 쉼터 조성 릴레이 기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산면은 지난달 31일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



임기진 목사골 로타리클럽회장과 정종안 영산강 농장 대표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공산면행정복지센터에 ‘우습제 쉼터 벤치’를 기부했다.

고 감사를 전하는 우습제 쉼터 벤치 기부식을 열었다.

임기진 회장과 정종안 대표는 “국내 최대 흥련 자생지인 우습제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우습제를 보러 오신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벤치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영순 공산면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릴레이 기부가 더해져 우습제가 단순한 흥련 관광지를 넘어 마음 편하게 쉬어 가는 명소가 진화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광객 편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동신대학교 앵커사업단 글로벌지역특화인재양성센터는 최근 몽골 현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부터 기술경영 자문, 기술이전까지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성화 분야의 해외 확산과 국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신대 앵커사업단, 몽골 기관과 교육·자문 등 연계 성과

글로벌 기업지원 프로그램 통해 K-뷰티·재활치료 분야 협력

동신대학교 앵커사업단 글로벌지역특화인재양성센터(센터장 임순호)가 최근 몽골 현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부터 기술경영 자문, 기술이전까지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성화 분야의 해외 확산과 국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신대학교 앵커사업단의 대표 사업인 DSU-BIZ-Care ‘글로벌 확장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몽골 현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과 기술경영 자

문, 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 모델을 구축했으며, K-뷰티·재활치료와 공연예술무용 등 앵커사업 특성과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K-뷰티 분야에서는 제품 활용과 뷰티서비스 고도화 방안,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재활서비스 운영 개선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글로벌지역특화인재양성센터는 교육과 기술경영 자문 과정에서 확인된 현지 수요를 기술이전으로 연계하며 협력 범위를 한 단계 확대

했다.

K-뷰티와 공연예술교육 분야에서 기술이전을 추진해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임순호 글로벌지역특화인재양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과 기술경영 자문, 기술이전을 하나의 협력 모델로 연결해 동신대학교 특성과 분야의 경쟁력을 해외에 확산한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산학협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